

# 부로일러의 생산을 조절

지난 1월 부화협회의 생산조절사업이 시도되었다가 보류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생산업자들이 자체 조절을 하지 않으면 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결론 끝에 모였다. 이 모임을 확대해 나가면 생산자 출하조합으로 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

## 같이 만나서 얘기 합시다

지난 2월 10일 한국가금협회 회의실에서 약 30명의 부로일러 생산자들의 모임이 있었다. 이 모임은 지난 1월에 시도되었다가 보류된 부화협자들의 생산조절사업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불때 자체내에서 생산을 조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될 불황을 타개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집합시키려는 생산자들의 모임이었다.

우리나라의 양계생산자들은 너무 많은 수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출하조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았다. 이번의 모임에서는 우선 만나서 의논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도에서 한국가금협회가 서울 근교의 1만수 이상의 대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부로일러 생산자들이 모이게 된 것이었다.

### 참 석 자

- 최호범(신철원양계단지)
- 윤종삼(구월양계단지)
- 조인철( // // )
- 최중록(제일축산)

- 주재석(계명농장)
- 허 돈(청천농장)
- 이호장(도봉동 203)
- 권명옥(서울축산)
- 정태동(도원농장)
- 이재택(포천축협)
- 윤원석(십정농장)
- 정성희(현인농장)
- 백기춘(대명농원)
- 이종균(대명농원)
- 황인옥(서울시청 축산계장)
- 이철우(입북양계단지)
- 김동찬(입북양계단지)
- 이재근(고려대학교수)
- 박철수(고양군 일산)
- 손용길(계명농장)
- 이용구(동은농원)
- 박찬수(성북구 수유동)
- 최상신(의왕정착사업장)
- 박영래(의왕정착사업장)
- 최상진(조일부화장)
- 사회 : 최창해(본회 부회장)
- 이날 협의안건으로 부의된 사항은

## 하 자



1. 부로일러 생산자의 자체조절 방안.
  2. 자체조절을 위한 부화장, 사료공장과의 상관관계.
  3. 부로일러 출하조합 설치문제
  4. 현 출하체제에서 중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책
  5. 부로일러 생산자간의 정보교환
  6. 부로일러 생산자의 권익보호방안 등이었다.
- 이제 토의경과를 알아보기로 하자.

**사 회 :**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들을 접혀놓으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것은 모든 양계인들이 공통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것은 「어떻게 하면 이 불황을 타개해 나가느냐」하는 생각이겠지요. 또 그것은 「이제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. 모여서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」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요. 이러한 시점에서 뚜렷한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기탄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이재근 :** 저 역시 부로일러를 년간 약 4만수 정도

하고 있습니다만, 이상태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심지어 1970년에는 병아리가 팔리지 않으니 각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그냥 갖다 맡기면서 길러서 이익이 남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예요.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비싸게 사다 놓은 종계를 가지고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마 그럴것지요. 그러다보니, 생산에 정수수보다 더 많이 기르게되고 결과는 과잉생산이 되지요.

**최중복 :** 저도 동참입니다. 저의 경우에도 모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거저 주는 거예요. 그러니 병아리 값만 주지 않아도 남을 것 아니겠어요. 그래서 길러놓고 보니 kg당 140원이니, 완전히 손들었지요.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각 부화장이 입란증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겠어요. 종계를 비싼 값으로 사다 놓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않겠어요. 그렇게 되니 제 소견으로는 아예 외국에서 병아리를 가져 오는 것부터 조절했으면 합니다.

**사 회 :** 예 그 문제는 지금까지 농림부 자체내에서 도입추천을 하던 것을 1972년부터는 한국가금협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도입과정에서는 약간 조절이 될것

년 도 별 육 계 수 급 계 획

년 도 별	육계소비추정수수	육 계 생 산 계 획		비 고
		노 폐 계	육 계	
1970	45,370,000	15,054,000	30,316,000	
1971	52,170,000	16,434,000	35,736,000	
1972	59,900,000	17,700,000	42,000,000	
1973	68,855,000	19,700,000	49,155,000	
1974	78,120,000	21,500,000	56,620,000	
1975	89,838,000	23,800,000	66,038,000	
1976	100,570,000	26,200,000	74,370,000	

1972년 도 육 계 생 산 계 획

도입년도	G. P. S	P. S 도입 또는 생산	P. S 수당 육계생산수	육계생산가능수수	1972년생산수수	비 고
1970	2,430	85,000	80	6,800,000	3,400,000	생산가능수수의 $\frac{1}{2}$
		173,670	80	15,500,000	3,875,500	" $\frac{1}{4}$
1971	7,880	275,880	80	22,264,000	11,132,000	
		303,680	80	24,275,000	18,279,000	
계					36,686,000	

1973년 육 계 생 산 계 획

도입년도	G. P. S	P. S 도입 또는 생산	P. S 수당 육계생산수	육계생산가능수수	1973년생산수수	비 고
1971	7,880	275,800	80	22,264,000	11,320,000	
		303,680	80	24,294,000	6,024,000	
계					17,344,000	

입니다. 그러나 현재 들어온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정수수를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.

그리고 위 표에서 보이는 생산수수의 40% 이상을 경인지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선 경인지구에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조절하면 나머지

지역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

최상진 : 동감입니다. 지난번 육계파동때도 서울이 140원일때 원주나 부산지방은 kg 당 200원씩 받던 곳도 있었으니 우선 서울지방이라도 생산을 조절했으면 합니다.

부화장 사료공장과의 관계

사 회 :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자체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. 만일 우리가 자체조절을 할때 부화장과 사료공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.

정태동 :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화장이나 사료공장이나 믿을 수 없습니다. 만일 우리자신이 조식을 가지고 스스로 생산을 조절해 나간다면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거져 갔다 말기지 못할



것이고, 사료공장에서도 병아리 숫자에 맞춰서 생산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. 그러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직인데 이것이 잘 안되면 우리 스스로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니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

**최상진** : 몇 년전에 가금협회의 부로일러분과위원회를 맡아서 서울근교의 업자들끼리만 모여서 단합을 해보니 잘 되더군요. 일단 조직만 만들어 봐도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. 그 조직이 만들어 졌다면 그것이 곧 중간상인에게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생산자의 위에서 마음대로 값을 정하던 중간상인들이 약해지고 생산자들이 값을 정하게 되니 우리들이 더 우위에 서게 되어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.

**황인옥** : 제 소견으로는 조직을 일시에 하기는 약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. 당장 출하조합의 형성보다는 오히려 협회가 중심이 되어 부로일러업자에게 수시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각각 조절해 나가다 어느 시기에 가면 그때 출하조합을 형성하시는게 어떨까요?

## 부로일러 출하조합 설치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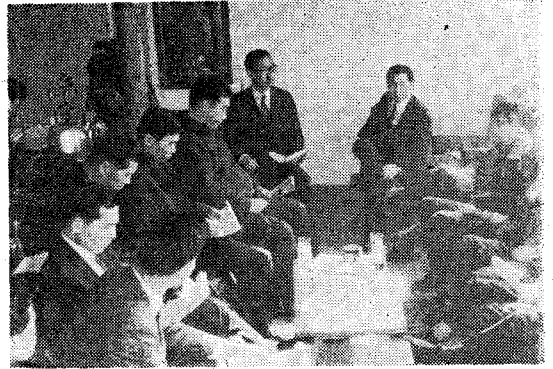
**허 돈** : 찬성입니다. 일단 우리 자신들이 출하조합을 형성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니 우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고 그 뒤에 출하조합을 형성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.

**이용구** : 지난번 부화협회에서 입란증지를 한다 하니까 회원중에서 「내가 내마음대로 입란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느냐?」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일것 같아요. 우선 정보조직이나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?

**이재근** : 이 정보조직은 가금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각 부로일러업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?

**사 회** : 좋습니다. 가금협회가 기꺼히 말아야 되겠지요. 그러나 협회가 맡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째는 이부문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의 여유가 없다는 것과 둘째는 서울 근교의 각부로일러 업자들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

**이재근** : 그렇다면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각 지역별 대표를 뽑아 각 지역의 부로일러업자들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면 가금협회에서는 그 주소로 일제히



초청장을 보내서 부로일러업자 총 대회를 개최한후 정보조직을 만들고, 직원문제는 총대회에서 매월 1인당 100원정도씩 내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 부로일러 문제만 전담하는 직원을 가금협회에 상주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.

**최종록** : 그 안이 좋습니다. 우선 우리들은 각자 돌아가서 각 지역의 부로일러업자들의 주소를 적어서 보내겠으니 총대회에서 조직을 만듭시다.

**사 회** : 예 그렇다면 우선 지역별 대표를 뽑아서 각 지역의 명단을 작성하여 본회로 보내주시면 일단 각 업자에게 통보를 하여 총 대회를 열기로 하고 총 대회에서 결의가 되면 가금협회에서는 부화협회 사료협회와 협의하여 부로일러 초생추생산현황, 가격과 생산과의 관계, 각 사육자의 사육방법을 조사하여 월간 양계지에 발표는 물론 각 부로일러 사양자에게 그때 그때 통보하여 주면 각자 판단하여 조절하는 방식을 취합시다. 오랜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여 선발된 지역별 책임자는 아래와 같다.

☆ 강원도 철원지역	최	호	봉
☆ 인천 구월단지	조	인	철
☆ 경기도 고양군	최	중	록
☆ 충청농장	허	돈	
☆ 도봉동	이	호	장
☆ 서울축산	전	명	옥
☆ 포천지역	이	재	덕
☆ 심정농장	윤	원	식
☆ 내곡리	정	성	회
☆ 대명원 및 경춘원	조	영	환
☆ 반월단지	이	철	호
☆ 의왕면	손	기	훈

이상이 각 지역의 명단조사책임자이다. 상기 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로일러 생산자들이 있다면 한국가금협회로 연락을 취하면 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모처럼 시도되는 생산자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부로일러의 시장정보교환이 성공한다면 채란계의 정보교환은 곧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. □□